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교직과 교사의 미래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에 진심인 교사-

대전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 배경화

클로키움에 참가하여 중요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대전교육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먼저 발제자인 고려대학교 신현석 교수님의 논제를 살펴보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교직과 교사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제의 주요 키워드는 사회변화, 교육패러다임, 교사로 이해된다. 발제자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 변화를 설명하고, 더불어 변화 된 교육패러다임을 학교 교육체제 기반에서 디지털 기반 학습체제의 평생학습 교육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교직의 직업적 가치가 상승하고, 근무의 질이 향상되며, 다변화된 교사 임용체제로 융·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미래역량을 가진 학습자이자 실천가인 교사가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I. 변화하는 사회

1. 사회 변화의 키워드

가. 인구구조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사회

모든 설계의 출발은 인구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점철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회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꼴찌를 기록하며 심각한 인구 위기에 처해있다. 발제자가 제시했듯이 이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 고용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는 말처럼 한사람 한사람이 소중한 사회가 되었다.

더불어 우리는 외국인주민 200만 시대를 살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0년 12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수가 약222만명(2019.1.기준)이다.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결혼이민자와 국내출생 자녀들, 유학생 등이 포함한다.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관련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한 2006년에는 9,572명으로 채 1만 명이 되지 않았으나 2020년에는 147,378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약2.75%에 달한다(2020.3.국가교육통계센터) 이는 향후 증가할 것도 더불어 예견되고 있다.

나. 사회구조의 변화: 양극화, 교육 불평등

발제자는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양극화와 교육 불평등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등으로 표현되는 계층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점점 늘어나는 개인사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은 밥은 먹고 살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빈곤의 악순환은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취업 기회의 불평등으로 나타나며 세대를 거쳐 불평등이 나타나게 된다. 하여 교육 취약계층의 증가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다. 경제구조의 변화: 소셜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교육부는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100만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을 발표했고,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 인재 10년간 15만 명 양성을 위해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발제자가 말한 과학기술의 첨단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특히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주요 의제가 되었고, 일반 사람도 변화를 눈여겨 바라보게 되었다. 또한 인공지능, 메타버스, NTF, 가상 인간 등으로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의 사회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와 있는 미래”라는 말처럼 디지털 기술 등은 우리 생활을 운택하게 변화시켰지만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배워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가 되었다는 발제자의 말에 적극 공감한다.

II.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

1. 교육 패러다임 변화의 키워드

서론에서 언급한 사회변화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발제자는 디지털 기반 학습체제를 바탕으로 평생학습으로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청, 지자체 등 참여 주체자에게 변화된 역할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 기능의 변화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을 말하고 있다.

가. 학령기(학교)교육체제→평생학습체제+디지털기반학습체제

2020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한국교육 비전으로 전 인구가 학교, 가정, 직장, 사회 등 모든 장소에서 다양한 교육 내용으로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수업, 원격수업을 미래 교육의 변화 모습으로 제시하였다. 이미 교육의 변화는 주도되었고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코로나19는 변화를 급격히 실행하게 만들 계기이다. 개학을 연기하고, 등교를 미루고, 원

격으로 수업하고, 온라인으로 대화하는 교육 방법이 실행되어야 했고 이는 많은 기술적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게 했다. 교육=학교, 학생=학령기아동으로 생각되던 과거와는 달리 교육은 배울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배움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학생이 되었다. 교육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자율화 되다 보니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교육의 방법 또한 획일적 집단수업에서 개별화 수업으로 방향성이 전개되었다. 즉,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개인적인 시간, 장소, 환경,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학습체제가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디지털전환 등에 대응하여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전시켜줄 교육환경 구축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어 스마트교실 구축과 디지털기기 지원 등에 대한 교육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 평생 학습사회 교육의 도래

평생학습 사회는 학습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전통적인 교육기관인 학교를 넘어 가정, 지역사회, 기업 그리고 다른 조직으로 확대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또한 공간적 요소 뿐 아니라 평생에 걸쳐 시간적 제약 없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즉 평생 언제라도 자유롭게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또한 학습 기회에 차별성이 없으며 생애 동안 학습권이 보장되는 사회이다. 자치단체나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혁신학교, 마을학교, 배달강좌, 청춘학교, 노인대학 등은 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의 요구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교육기관이다.

다. 참여 주체의 역할 변화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를 학생, 학부모, 교사라고 할 때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에서 학습자가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정보제공자·조력자로 변화를 요구하고, 학생은 주어진 지식을 전달받는 사람이었다면 학생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모험가로 변해야 한다고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 비전 2020에서는 말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자기 삶과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구성하는 능력으로 미래사회에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자의 주도성(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2021)을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학부모는 학습의 협력자이고 교육 현안에 대한 주요 참여자로 진화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다. 학교운영위원회, SNS 애플리케이션, 설문조사, 소통창고 등은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제안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네이버웨일 김효 책임리더는 “디지털 전환은 그간 교실, 교과서, 시험지 같은 물리적인 요소들의 한계를 넘어서 조금 더 교육 본질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한계와 환경적인 제약을 뛰어넘어 더 많은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사의 역할입니다. 교사의 역할도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나 AI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교사는 학생을 코칭하고 안내하는 포괄적인 역할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이 교육의 베이스라인을 높여주고, 대신 그간 집중하지 못했던 인간적인 요소에 투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술과 사람이 함께하여 더 나은 교육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 Autumn 교육개발) 라고 말했는데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라. 교육 방법의 변화

발제자의 의견처럼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고, 학습의 차원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학습 환경 구축은 교육패러다임의 화두이다. “학생들은 환경의 편차 넘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그 기반을 기술이 제공해야 한다” 라는 말처럼 국가, 교육청, 학교, 학부모는 학생들의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격수업 관련 네트워크 구축, 장비 제공, e-학습터, EBS와 같은 교육 콘텐츠 제공 등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한 모습이다. 또한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메타버스, AI 등의 교육적 활용으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

Ⅲ. 변해야 하는 교직과 교사

1. 교직과 교사 변화의 키워드

사회변화는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교직과 교사는 변화와 함께 해야 한다. 발제자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와 학교 수 감소는 교원양성기관의 구조 조정과 교원양성체제를 변화시킬 것이라 하였고, 문제해결 능력과 미래역량을 갖춘 학습자이자 실천가로서의 교사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발제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의 교사의 역할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가. 귀한 아이들의 개개인 특성 맞춤형 교육 전문가

2022개정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표명하고 있으며, 학습자가 자신의 삶과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구성하는 능력을 키워 미래사회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학습자 주도성(Agency)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다루는 교사는 귀한 아이들의 개개인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히 조력하는 맞춤형 교육 전문가여야 한다.

나.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성장 지원하는 교육과정 전문가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으로부터 시·도교육청, 학교, 학급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구체화

되고 실천력을 지닌다. 교사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취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자신의 학교가 소속된 지역사회, 학급과 수업에서 학생 실태와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교육과정 문해력을 갖춘 전문가여야 한다.

다. 디지털 학습 기반 체제에서 전문직으로서의 교사

인간의 행동과 학습을 다루는 교사는 디지털 시대의 교육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형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체제에 익숙하고 학습자 개별 맞춤형 지도 및 평가를 실천해야 한다. 디지털 에듀테크 활용 역량이 풍부한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이고, 변화는 교육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

끝으로 대전시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에 진심인 교사들을 바로 미래 사회환경 변화에 적합한 교사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